

지역발전위 호남 6개 권역 개발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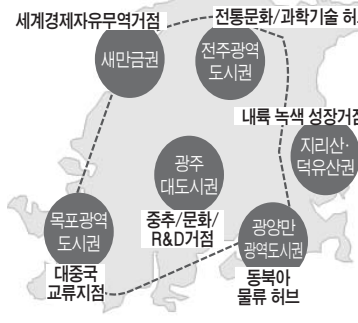
광주권 발전방향은 문화·R&D

목포권-수산식품·조선업·신재생에너지 광양권-기간산업·친환경부품소재 주력

광주·전남과 전북이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경제·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9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호남권 광역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광주·전남과 전북은 ▲광주대도권 ▲목포광역도시권 ▲광양만권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새만금권 ▲지덕권(지리산, 덕유산) 등 6개 권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도권은 R&D(연구·개발)

특구와 친환경부품소재, 문화 중심지로, 목포광역도시권은 수산식품과 조선·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광양만광역도시권은 기간산업과 친환경부품소재 산업 중심지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전주광역도시권은 친환경부품소재·식품·문화 중심지로, 새만금권은 수송농업과 조선·신재생에너지·친환경부품소재·국제업무 중심지로, 지덕권은 휴양지로서 내륙 녹색성장거점으로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호남광역경제권 공간배치구상



다. 또 관광레저도시개발, 해양관광 인프라, 문화관광 인프라, 산악관광 인프라 등 4대 문화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레저도시의 의료와 뷰티, 라이프커어가 융합된 신개념 휴양시설이고, 해양관광인프라는 마리나와 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 관광기반시설이 구축된다. 문화관광인프라는 소리와 한옥, 음식 등남도문화를 체험하는 남도문화 체험센터가 들어서고, 금강과 섬진강의 생태문화가 활용되며, 산악관광인프라는 생태와 교육, 엔터테인먼트가 융복합된 '에코테이먼트 거점'으로서 농업테마공원과 생태마을, 생태관광센터가 들어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F1 서킷(경주용 트랙) 표면 포장 공사

다음달 8일까지 완료

F1(포틀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의 아스팔트 표면 포장 공사가 다음달 5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표면 포장 공사와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의 최종 검수가 대회 개최를 불과 10여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F1 대회운영본부 카보(KAVO)와 전남도 F1지원본부 등은 29일 "영암 경주장 서킷에 대한 표면 포장 공사를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틸케사 기술엔지니어 5명이 30일 입국하면 다음달 1~4일까지 맨아래 기층과 중간층의 포장 상태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친 뒤 5일부터 4일간 두께 5cm의 표면 포장 공사를 전체 구간(5.615km)에 대해 진행한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표면 포장공사는 FIA의 최종 검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11일로 확정된 검수절차를 통과해야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모터레이스 서킷 공인규정'에 따르면 최종검수는 예정된 첫 국제 경기가 열리기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검수 때까지는 트랙 표면과 주요 시설 및 안전 구조물 등이 FIA의 기준에 맞게 완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암 서킷의 경우 경주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예정된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개최를 불과 10여일 남겨둔 시점까지 검수가 연기된 실정이다. 국내외에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KAVO측은 또 10만여명을 수용할 가설스탠드 관람석도 다음달 5일까지 부착용 의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10일~15일에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D 솔루션 업체와 MOU

김문태 광주시장이 2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세계적인 3D토털 솔루션 전문업체인 오토데스크(한국법인대표 김동식)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오토데스크는 3D엔터테인먼트 교육용 프로그램 125부(20억원 상당)를 지원하며, 공인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3D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제9공>

광문태 광주시장이 29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세계적인 3D토털 솔루션 전문업체인 오토데스크(한국법인대표 김동식)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오토데스크는 3D엔터테인먼트 교육용 프로그램 125부(20억원 상당)를 지원하며, 공인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3D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제9공>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 41년동안 1.31℃ 상승

지난 41년 동안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영록(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8~2008년 한반도 주변해역은 1.

31℃ 상승했다. 이는 세계 평균 0.67℃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해역별로는 동해 1.39℃, 남해 1.29℃, 서해 1.24℃로 집계됐고, 계절별로는 겨울 1.41℃, 여름 0.77℃ 상승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온도 상승하면서 어족과 해초의 분포가 바뀌고 있다"며 "환경 연구 기관과 연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5세 이상 인구 전남 34만명

고령 31.4% 전국 최고 ... 초고령 시군 16곳

광주·전남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해마다 늘면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시군이 16곳이나 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고령자(65세 이상)는 5630명이 증가한 12만4083명으로 전체 인구(143만3640명)의 8.6%를 차지했다. 광주는 2005년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 비율 7~14% 미만)에 진입했다. 지난 2001년 '고령사회'(고령자 비

율 14~20% 미만)에 진입한 전남은 고령자가 34만3861명으로 전체 인구(191만3004명)의 17.9%를 차지했다. 고령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31.4%로 경북 의성·군위와 함께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

보성(29.1%), 곡성(28.7%), 신안(27.9%), 진도·장흥(27.8%), 강진(26.6%), 완도(25.9%) 등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았다. 광주의 경우 2021년 고령자 비율이 14.4%로 '고령사회'에, 2028년에는 20.4%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예산 553억 추가 확보

광주시가 2011년 정부 예산 중 하남산업단지 외곽도로 공사(60억원) 등 4건에 553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애초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반영되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광주시와 지역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노력한 끝에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물론 광주~화순 간 도로확장(45억원), 일

곡~용진 간 도로확장(40억원)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는 95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이에 따라 2011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모두 122건에 1조4371억원으로, 올해 국비확보액 1조2444억원 대비 1927억원(15.5%)이 늘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7급 공채 250대 1

장흥군 9급 185.8대 1

취업난으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1500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리면서 18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29일 2010 전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장흥군의 경우 9급 공무원(일반행정) 8명 모집에 전국적으로 1486명이 몰려 평균 18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에 주소나 본적을 둔 응시자가 706명, 광주는 562명으로 나타났고 남자(698명)에 비해 여성(788명)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군의 경우 9급 공무원 채용 인정이 없는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해 하반기 채용을 추진하면서 응시자가 몰렸다. 이는 전남도측 분석이다. 또 3명을 뽑는 전남도 7급 공무원 시험에도 749명이 몰리면서 무려 249.6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도 7급 공무원 1명 모집에 115명이 몰리는 등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전남도 고성혁 인력관리과장은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대학생들이 공무원 공채 시험에 대거 몰리고 있다"면서 "최근 생겨난 '7·9급 고시'라는 말이 사실임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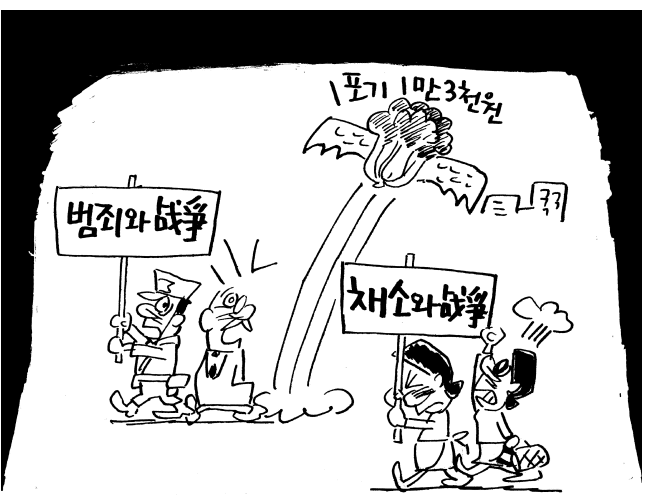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안연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 안연순(53) 전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이 임명됐다. 광주 출신인 안 청장은 광주제일고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1983년 공직(기술고시 19회)에 입문해 대통령 비서실 환경행정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 등을 역임했다. 안 청장은 다음달 1일 취임한다. /양승훈기자 yang@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살다 살다 별짓을 다하고 산다

SALE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행사기간 : 9월 20일 ~ 10월 20일 **사용료만 내세요! 월 20,000원**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속 있는 효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90,000원** → **219,000원** (설치비 포함)

모든 구매고객에게 1년치 필터(2ea) 증정

광주서남점

노비타비데하남총판 **비데프라자** | ☎(062)515-1144 ※ 위치: 동림 2지구 동림병원 앞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가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절망하면 100% 원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물,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 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 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062) 서구 352-7788 북구 512-7998 남구 676-7719 | 전남(061) 목포(삼화) 274-5987 순천 744-8605 목포(건영) 243-7463 여수 654-7755 |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